

인천공항 중국발 전용 입국장 가동...“감수해야 할 일”

1터미널 두곳·2터미널 한곳...다른 승객 접촉 차단
발열·호흡기 증상 체크 후 주소·전화번호 확인
중국인들 “불편하지만 당연한 것” 긍정적 반응 보여



중국발 전용 입국장을 따로 설치했다. 중국에서 들어온 승객들을 다른 승객들과 접촉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중국에서 온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근 검역장소로 이동해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 신고서를 제출했다.

건강상태 질문서는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특별검역신고서는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후베이성 체류 여부를 적게 돼 있다. 14일 내 후베이성 체류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승객들은 이어 실제 검역도 받았다. 체온계로 체온을 재서 발열 여부를 확인받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받는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격리돼 치료조치를

중국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시작된 4일 총 85편의 중국발 항공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 가운데 인천공항은 차분히 입국객들을 맞이했다.

검역당국은 이날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제1터미널에 양끝 A와 F구역 두 곳, 2터미널에는 A구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국인 전용 입국장이 별도로 신설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4일 0시부터 시작되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2곳, 제2터미널에 1곳 등 중국 전용 입국장 총 3곳이 설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국인 전용 입국장이 별도로 신설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검역 확인증을 들어보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4일 0시부터 시작되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2곳, 제2터미널에 1곳 등 중국 전용 입국장 총 3곳이 설치됐다.

반게 되는데, 오전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승객은 발생하지 않았다.

증상이 없어 검역대를 통과한 승객들은 국내 연락처를 확인받는 절차를 밟았다. 검역대 앞에 설치된 전화기 앞에서 실제 전화를 걸어 연결여부를 체크했다. 이 단계까지 확인받은 승객은 '검역 확인증'을 지급받는다. 이 확인증이 없으면 입국 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특별검역 신고서 작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고서 작성을 잘못하거나 작성된 연락처로 바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해 심사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러시아 남성 1명이 제1여객터미널 2층 특별 검역대에서 연락처 문제로 검역당국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환승객으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마무리 됐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에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총 5편

이, 6시부터 10시까지는 5편의 중국발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중국승객들이 입국절차를 밟은 상태다.

앞으로 남은 중국발 항공은 75편이 남은 상태다.

입국절차를 밟고 확인증을 받은 중국인들은 취재진에게 검역확인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국인 A씨는 "입국시간이 다소 소요돼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이런 점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감수하는 것이 맞다"며 검역당국의 강화된 입국절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페렴)' 확산을 막기 위해 4일 0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 비자 사증의 효력도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후베이성은 이번 바이러스 진원지로 지목되는 우한시 화난수산시장이 속한

곳으로 현재 중국 전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다.

검역 관계자는 "혹시 후베이성에 온 외국인이 있을수도 있어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 시에 해당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단계 검역소에서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후 중국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과 승객도 크게 줄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중국 항공편은 247편, 총 2만895명이 입국했는데, 3일에는 193편, 1만 8818명이 입국했다.

뉴스1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